



문화연대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81-9(연희동) 3층, 03708

T. 02-773-7707 | F. 02-737-3837 | culture918@gmail.com

culturalaction.org

- 
- 문서번호 : 문화연대20190902\_01
  - 시행일자 : 2019. 09. 02. (월)
  - 수 신 :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사회(김영식 이사장, 전필립 이사, 최윤정 이사, 김명규 이사, 정동혁 이사, 이재호 이사, 방문규 이사, 서미영 이사 이상 8명)
  - 발 신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 담당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김재상 010-3775-3132
  - 제 목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던 현 송수근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임명에 관해,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사회에게 입장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
- 

1. 안녕하십니까. 문화연대입니다.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예술(가)에 대한 지원 배제, 표현의 자유 침해, 사전 검열, 직권남용 등이 작동된 국가 범죄 사태입니다. 형사 소송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며 집단 민간 소송 또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주체 및 기관들은, 사태 해결에 대한 미온적 대처와 진정성 없는 사과로 다시 한 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블랙리스트 실행자들에 대한 송방망이 처벌과 자진사퇴를 통한 셀프 면책 이후, 국가 범죄 가해자들이 문화예술계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음이 포착되고 있기도 합니다.

3. 문화연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해결을 위해 많은 문화예술인 및 민간단체들과 함께 연대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던 “송수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 전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실장”이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연대는 8월 7일, <학교법인 계원학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던 현 송수근 총장에 대한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라는 제목의 관련 성명서를 1건 발표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대해 문화연대는, 학교법인 계원학원 김영식 이사장과 이사 7명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던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의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임명에 관한 공개적인 입장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사장과 이사 7명 각각에게 입장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신은 **9월 16일 (월) 18:00**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 회신처 : culture918@gmail.com / fax)02-737-3837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81-9 3층 문화연대

5. 문화연대는, (1)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피해 입은 문화예술인 및 일반 국민의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2)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도록, (3)정부에게서는 책임 있는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붙임#1]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사회 구성원(이사장 1명, 이사7명) 개인에게 발신하는 공개질의서 8부

[붙임#2] 계원예술대학교 송수근 총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근거 8부

[붙임#3] 송수근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임명 철회, 문화연대 성명서(2019.08.07.)

---

문 화 연 대



[붙임#1]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사회 구성원(이사장 1명, 이사7명)에게 발신하는 공개질의서

---

##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의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임명에 대한 공개 질의서

학교법인 계원학원 김영식 이사장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

문화연대는 학교법인 계원학원 김영식 이사장에게,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의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자격 여부 등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를 보냅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원예술대학교 송수근 총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근거는, [붙임#2]을 참조)

1. “세계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할 최고의 예술가를 양성하고 대한민국 예술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학교법인 계원학원은,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당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다양한 경로(언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_진상조사 결과보고서 : 기관별, 김기춘 등에 대한 판결문 등 [붙임#2])를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송수근 총장에 대한 후보 검증 및 심사 내용을 전면 공개하여 임명까지의 과정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송수근 총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음을 인지했다면, 어떤 근거로 이사 6명이 전원 찬성하여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계원예술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90626\_2019학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록(공개)” 중, “ 의안 제4호)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선임안”(참조))

4. 철저한 인사 재검증이 시행되어야하고, 재검증이 마무리 될 때까지 송수근 총장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사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의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임명에 대한 공개 질의서

학교법인 계원학원 전필립 이사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

문화연대는 학교법인 계원학원 전필립 이사에게,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의 계원 예술대학교 총장 자격 여부 등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를 보냅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원예술대학교 송수근 총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근거는, '[붙임#2]'을 참조)

1. “세계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할 최고의 예술가를 양성하고 대한민국 예술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학교법인 계원학원은,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당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다양한 경로(언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_진상조사 결과보고서 : 기관별, 김기춘 등에 대한 판결문 등[붙임#2])를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송수근 총장에 대한 후보 검증 및 심사 내용을 전면 공개하여 임명까지의 과정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송수근 총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음을 인지했다면, 어떤 근거로 이사 6명이 전원 찬성하여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예술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90626\_2019학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록(공개)” 중, “**■ 의안 제4호**)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선임안”(참조))

4. 철저한 인사 재검증이 시행되어야하고, 재검증이 마무리 될 때까지 송수근 총장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사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의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임명에 대한 공개 질의서

학교법인 계원학원 최윤정 이사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

문화연대는 학교법인 계원학원 최윤정 이사에게,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의 계원 예술대학교 총장 자격 여부 등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를 보냅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원예술대학교 송수근 총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근거는, **‘[붙임#2]’**을 참조)

1. “세계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할 최고의 예술가를 양성하고 대한민국 예술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학교법인 계원학원은,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당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다양한 경로(언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_진상조사 결과보고서 : 기관별, 김기춘 등에 대한 판결문 등[붙임#2])를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송수근 총장에 대한 후보 검증 및 심사 내용을 전면 공개하여 임명까지의 과정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송수근 총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음을 인지했다면, 어떤 근거로 이사 6명이 전원 찬성하여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예술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90626\_2019학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록(공개)” 중, “**■ 의안 제4호)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선임안**”(참조))

4. 철저한 인사 재검증이 시행되어야하고, 재검증이 마무리 될 때까지 송수근 총장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사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의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임명에 대한 공개 질의서

학교법인 계원학원 김명규 이사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

문화연대는 학교법인 계원학원 김명규 이사에게,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의 계원 예술대학교 총장 자격 여부 등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를 보냅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원예술대학교 송수근 총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근거는, '[붙임#2]'을 참조)

1. “세계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할 최고의 예술가를 양성하고 대한민국 예술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학교법인 계원학원은,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당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다양한 경로(언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_진상조사 결과보고서 : 기관별, 김기춘 등에 대한 판결문 등[붙임#2])를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송수근 총장에 대한 후보 검증 및 심사 내용을 전면 공개하여 임명까지의 과정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송수근 총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음을 인지했다면, 어떤 근거로 이사 6명이 전원 찬성하여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예술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90626\_2019학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록(공개)” 중, “**■** 의안 제4호)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선임안”(참조))

4. 철저한 인사 재검증이 시행되어야하고, 재검증이 마무리 될 때까지 송수근 총장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사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의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임명에 대한 공개 질의서

학교법인 계원학원 정동혁 이사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

문화연대는 학교법인 계원학원 정동혁 이사에게,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의 계원 예술대학교 총장 자격 여부 등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를 보냅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원예술대학교 송수근 총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근거는, '[붙임#2]'을 참조)

1. “세계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할 최고의 예술가를 양성하고 대한민국 예술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학교법인 계원학원은,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당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다양한 경로(언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_진상조사 결과보고서 : 기관별, 김기춘 등에 대한 판결문 등[붙임#2])를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송수근 총장에 대한 후보 검증 및 심사 내용을 전면 공개하여 임명까지의 과정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송수근 총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음을 인지했다면, 어떤 근거로 이사 6명이 전원 찬성하여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예술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90626\_2019학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록(공개)” 중, “**■ 의안 제4호**)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선임안”(참조))

4. 철저한 인사 재검증이 시행되어야하고, 재검증이 마무리 될 때까지 송수근 총장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사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의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임명에 대한 공개 질의서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재호 이사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

문화연대는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재호 이사에게,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의 계원 예술대학교 총장 자격 여부 등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를 보냅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원예술대학교 송수근 총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근거는, **‘[붙임#2]’**을 참조)

1. “세계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할 최고의 예술가를 양성하고 대한민국 예술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학교법인 계원학원은,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당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다양한 경로(언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_진상조사 결과보고서 : 기관별, 김기춘 등에 대한 판결문 등[붙임#2])를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송수근 총장에 대한 후보 검증 및 심사 내용을 전면 공개하여 임명까지의 과정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송수근 총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음을 인지했다면, 어떤 근거로 이사 6명이 전원 찬성하여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예술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90626\_2019학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록(공개)” 중, “**■ 의안 제4호)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선임안**”(참조))

4. 철저한 인사 재검증이 시행되어야하고, 재검증이 마무리 될 때까지 송수근 총장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사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의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임명에 대한 공개 질의서

학교법인 계원학원 방문규 이사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

문화연대는 학교법인 계원학원 방문규 이사에게,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의 계원 예술대학교 총장 자격 여부 등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를 보냅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원예술대학교 송수근 총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근거는, '[붙임#2]'을 참조)

1. “세계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할 최고의 예술가를 양성하고 대한민국 예술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학교법인 계원학원은,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당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다양한 경로(언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_진상조사 결과보고서 : 기관별, 김기춘 등에 대한 판결문 등[붙임#2])를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송수근 총장에 대한 후보 검증 및 심사 내용을 전면 공개하여 임명까지의 과정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송수근 총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음을 인지했다면, 어떤 근거로 이사 6명이 전원 찬성하여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예술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90626\_2019학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록(공개)” 중, “**■ 의안 제4호**)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선임안”(참조))

4. 철저한 인사 재검증이 시행되어야하고, 재검증이 마무리 될 때까지 송수근 총장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사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의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임명에 대한 공개 질의서

학교법인 계원학원 서미영 이사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

문화연대는 학교법인 계원학원 서미영 이사에게,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의 계원 예술대학교 총장 자격 여부 등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를 보냅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원예술대학교 송수근 총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근거는, **‘[붙임#2]’**을 참조)

1. “세계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할 최고의 예술가를 양성하고 대한민국 예술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학교법인 계원학원은,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당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다양한 경로(언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_진상조사 결과보고서 : 기관별, 김기춘 등에 대한 판결문 등[붙임#2])를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송수근 총장에 대한 후보 검증 및 심사 내용을 전면 공개하여 임명까지의 과정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송수근 총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음을 인지했다면, 어떤 근거로 이사 6명이 전원 찬성하여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예술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90626\_2019학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록(공개)” 중, “**■ 의안 제4호)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선임안**”(참조))

4. 철저한 인사 재검증이 시행되어야하고, 재검증이 마무리 될 때까지 송수근 총장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사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붙임#2] 계원예술대학교 송수근 총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근거

아래와 같이(이외 다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 뉴스페이퍼 <송수근 전 문체부 차관의 계원예술대학 총장 임명에 대한 반대 의견 일어...> 2019.08.08.  
“계원예술대학교는 지난 7월 30일 경 언론을 통해 제9대 총장에 송수근 전 문체부 차관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수근 전 문체부 차관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실행 계획을 확정하였던 2014년 10월부터,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사태가 발생한 2016년 하반기까지 문체부 내 실무 총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인물로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송수근 전 문체부 차관의 계원예술대학 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성명서 2019.08.08.  
“송수근 차관이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 연루된 정황은 김기춘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송수근 실장은 ① 문화예술(문예기금 지원, 비엔날레 사업) ② 콘텐츠(영화기금 지원, 영화제 지원) ③ 미디어(우수도서 선정)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청와대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심사 강화(공공기관 담당자가 정부지원방향을 심사에 적용), 의결단계 재검증 기능 강화, 예술감독 선정의 건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지원검토, 문제영화 상영 영화제의 사후 통제 강화(문제영화제 차년도 지원예산 삭감), 심사위원 자격 기준 강화(문제 도서를 심사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취합·정리한 후, 이를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김종덕 장관은 2014. 10. 21. 경 피고인 김기춘의 공관을 찾아 가 위 보고서 내용을 대면 보고하였고, 피고인 김기춘은 보고 내용에 대해 기뻐하면서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내용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김기춘 등에 대한 1심 판결문 15~16쪽)

\* 한겨레 <[단독] 황교안이 임명한 문체부차관은 ‘블랙리스트 총괄팀장’> 2016.12.31.  
“송수근 1차관, 기획조정실장 시절 ‘건전콘텐츠 TF’ 맡아 / “블랙리스트 오른 ‘문제사업’ 관리” 문체부 내부 증언 / 특검 주요 수사대상…임명배경·의도에 의혹 폭증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30일 야권의 반발 속에 임명한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총괄 실행한 장본인이라는 문체부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문체부 내부 관계자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송수근 신임 차관은 문체부 기획조정실장(2014년 10월~)으로 있으면서 ‘건전콘텐츠 티에프(TF)팀’ 팀장을 맡아 블랙리스트에 오른 각 실·국의 ‘문제 사업’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 한겨레 <송수근 전 차관, 블랙리스트 실행계획·집행 드러났으나...> 2017.06.13.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송수근 전 차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행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에 대한 조처는 ‘숨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_진상조사 결과보고서 : 기관별 2-1 중  
“5. 문체부 내 건전콘텐츠 활성화 TF등의 구성 및 운영 사건(356~417쪽)”

[붙임#3] 송수근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임명 철회, 문화연대 성명서(2019.08.07.)

## [성명] 학교법인 계원학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던 현 송수근 총장에 대한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 예술대학 총장이 블랙리스트 관련자라니?!? -

최근 발생한 재학생·졸업생 등의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현재까지도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계원예술대학에서, 또 한 번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이어졌다. 2019년 7월 29일, 학교법인 계원학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던 송수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하 송 전 차관)을 계원예술대학교 제9대 총장에 임명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것이다.

### 문화예술 현장에서 복귀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

송 전 차관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블랙리스트 집행 방안을 보고해 달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로, 이어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 팀장을 맡으며 문제 영화를 상영한 영화제의 사후 통제 강화, 심사위원 자격 기준 강화 등이 담긴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실질적 인물이었다. 그러나 송 전 차관은 조사가 한창이었던 2017년 당시, 장관 등의 고위직들이 이미 블랙리스트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과 감사원 징계를 면하게 됐다.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 표현의 자유가 원천 배제되었던 블랙리스트 사태가 아직 진행 중이다. 문화·예술계 명단(블랙리스트)을 만들게 한 혐의(직권남용)로 관련자들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블랙리스트 작동으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 및 일반 국민도 집단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방송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었던 이명박 정부 때부터, 문건의 실체가 드러난 박근혜 정부 때까지. 무려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음에도 정부는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관련자 처벌 등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자가 예술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의 최고 권한자로 임명된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책임감 없는 도피성 자진사퇴와 솜방망이 처벌에 의한 면책 수준의 징계 이후, 블랙리스트 주요 관련자들의 행보는 자신이 가해를 저질렀던 문화예술현장으로 아무렇지 않게 발길을 옮겨가고 있다.

언론 또한 사태를 무마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블랙리스트 실행자였던 송 전 차관의 총장 임명 기사를 보도하며, '문체부 재직 시절 장관 대행을 맡아 블랙리스트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조직을 잘 추슬렀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사에 싣기도 했다. 그 어느 언론에서도 문화예술계에 송 전 차관이 저지른 과거 만행을 다루는 곳이 없다. 앞서 얘기한, 피해자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관련자 처벌 등의 후속 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라는 공적 기관의 위상과 권력을 보호하고 방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는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 가해자들의 2차, 3차 가해 행위에 동조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전문성과 적합성이 의심되는 학교법인 계원학원의 총장 검증 절차**

2019년 5월 27일 계원예술대학교 공지사항 채용 공고란에 게재된 총장 초빙 지원서류 내용 중에는 연구 윤리 관련 자기검증 문항이 있다. 이 중, 7번 문항의 질문은 '귀하께서는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국책연구나 정책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를 '예 / 아니요'로 묻고 있다. 블랙리스트 사태와 직결되는 해당 문항에 송 전 차관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학교법인 계원학원의 총장 후보자 검증 절차이다.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선출 규정에 따라, 총장후보자를 법인에 추천하는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설치되고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사회(이하 이사회, 이사장 김영식 외 7명)'와 함께 후보자에 대한 심사와 검증이 이뤄진다. 2019년 6월 20일 총장 후보자의 소견발표가 진행됐고, 이후 6월 26일 이사회 회의를 통해 송수근 후보자가 이사장에 의해 제안됐다. 그리고 당일 회의에 참석한 이사 6명이 전원 찬성하여 송수근 후보자가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에 임명됐다.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이미 총장 임명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총추위와 이사회가 블랙리스트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그 수준을 엿볼 수 있다. 이사회는 전문성과 적합성이 의심되는 검증 절차를 거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던 송 전 차관을 총장에 이르게 했다. 다시 말해, 총추위와 이사회는 안일함은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 가해자를, 문화예술 현장과 문화예술계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예술교육 기관으로 다시 불러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이 이뤄져야 하며, 재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송 전 차관의 총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강조한다.**

자신의 과오에 대한 성찰 없이 몰염치하게 문화예술계 현장으로 돌아온, 송수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자진 사퇴하라!

학교법인 계원학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심각성의 무지함과 블랙리스트 실행자가 문화예술계 현장 복귀에 일조하였음을 인정하고, 공개적인 사과와 송수근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2019년 8월 7일  
문화연대